

## 참고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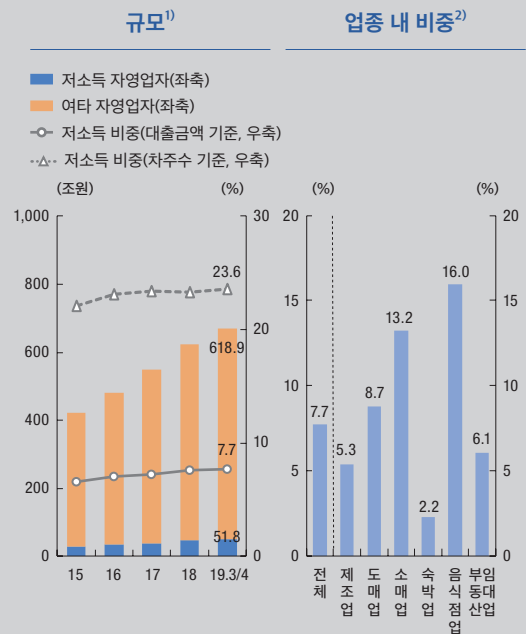
###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sup>1)</sup> 현황 및 건전성 점검

자영업자 대출은 정부 규제<sup>2)</sup>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출건전성은 대체로 양호한 상황<sup>3)</sup>이다. 그러나 저소득 자영업자<sup>4)</sup>의 경우 사업 규모가 작고 업황부진을 견뎌낼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경기둔화 시 대출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하에서는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의 현황을 살펴보고 건전성을 점검해 보았다.

####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 현황

2019년 9월말 저소득 자영업자의 대출금액은 51.8조원(차주수 44.5만명)으로 전체 자영업자 대출 670.6조원(차주수 188.3만명)의 7.7%(차주수 기준 23.6%)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 내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의 비중은 사업규모가 비교적 큰 부동산임대업, 제조업 및 숙박업은 각각 6.1%, 5.3%, 2.2%로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음식점업 및 소매업의 경우 각각 16.0%, 13.2%로 높게 나타났다.

####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 현황



주: 1) 기말 잔액 기준

2) 2019년 9월말 대출잔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은 2015~16년 연평균 18.9% 증가하여 같은 기간 여타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11.5%)을 상회하였으며,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된 2017년 이후에도 사업자대출을 중심으로 높은 대출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다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18년 3월) 이후에는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으며 2019년 9월말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12.1%로 여타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9.9%)을 소폭 상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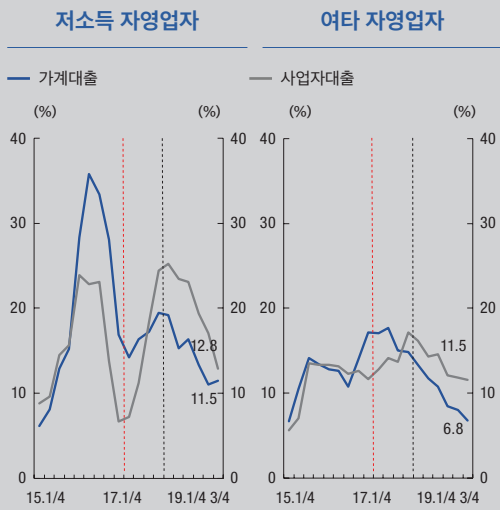
1) 한국은행은 가계부채DB를 활용하여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식별하고 이들 차주의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의 합을 자영업자 대출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하지 않고 가계대출만을 보유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대출은 포함되지 않았다.

2) 업종별 여신한도 설정 및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18년 3월 26일)과 특정 업종 편중 집중관리 등이 포함된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18년 12월 24일)이 연이어 시행되었다.

3) 자세한 내용은 2019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 <참고 3> 「최근 자영업자 대출 현황 및 건전성 평가」(30쪽)를 참조하기 바란다.

4) 본고에서는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자영업자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다만 대출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여 실물자산 등 자산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영업자는 분석대상에서 제외(소득 3천만원 이하 자영업자의 9.7%를 차지, 차주수 기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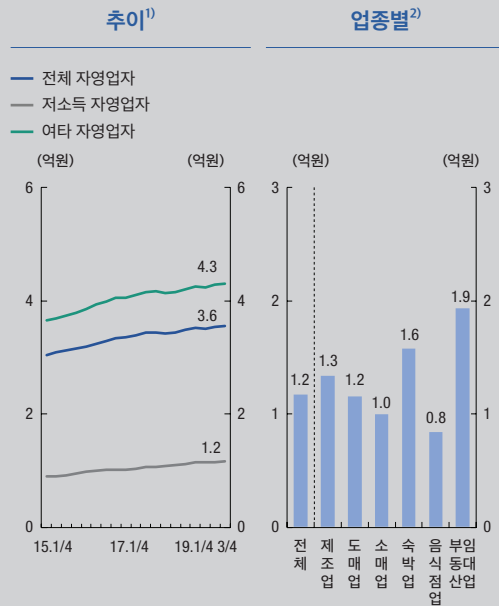
### 저소득 자영업자 상품별 대출 현황<sup>1)2)</sup>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기말 잔액 기준)  
 2) 붉은 점선은 가계대출 규제 강화 시점, 검은 점선은 개인사업자대출 규제 강화 시점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저소득 자영업자의 1인당 대출금액은 1.2억원으로 여타 자영업자(4.3억원)의 1/3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임대업 1.9억원, 숙박업 1.6억원, 제조업 1.3억원, 도매업 1.2억원, 소매업 1.0억원, 음식점업 0.8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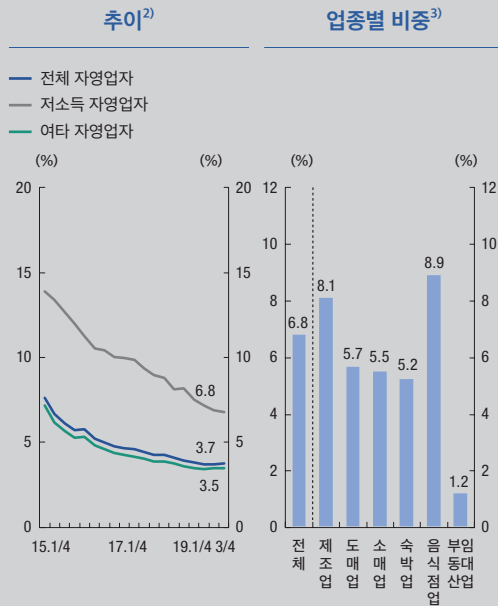
### 저소득 자영업자 1인당 대출금액



주: 1) 기말 잔액 기준  
 2) 2019년 9월말 대출잔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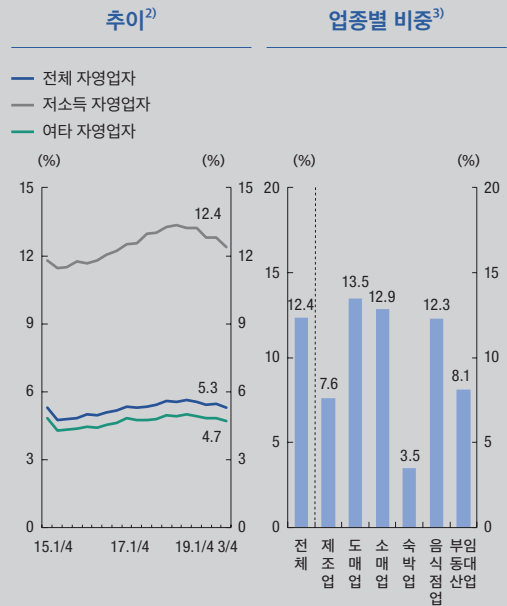
###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의 건전성 점검

2019년 9월말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 중 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6.8%로 여타 자영업자(3.5%)보다 크게 높았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업 및 제조업의 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각각 8.9%, 8.1%로 높게 나타났다.

저신용자<sup>1)</sup> 비중

주: 1) 신용등급 7~10등급  
 2) 기말 잔액 기준  
 3) 2019년 9월말 대출잔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 중 고금리대출업권(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대부업)<sup>5)</sup> 비중은 12.4%로 여타 자영업자(4.7%)의 2.6배에 달한다. 업종별로는 도매업의 비중이 13.5%로 가장 높았으며, 소매업 12.9%, 음식점업 1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금리대출업권<sup>1)</sup>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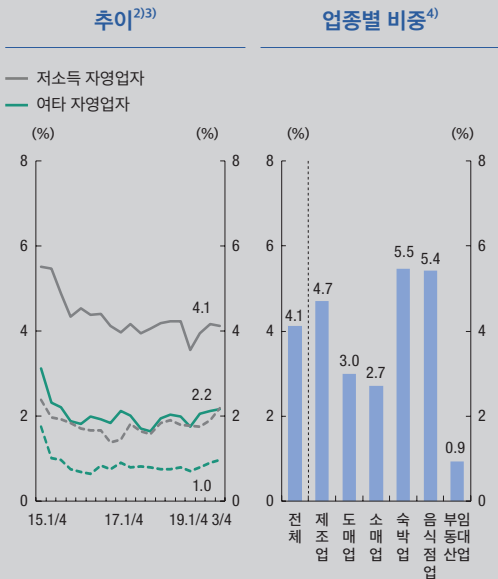
주: 1)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대부업  
 2) 기말 잔액 기준  
 3) 2019년 9월말 대출잔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잠재적인 부실을 나타내는 연체차주 대출 비중<sup>6)</sup>은 저소득 자영업자가 4.1%로 여타 자영업자(2.2%)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며 2018년말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90일 이상 장기 연체차주의 대출 비중이 2017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업종별로는 숙박업(5.5%) 및 음식점업(5.4%) 등이 여타 업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2019년 9월말 기준 가계부채DB상 자영업대출차주의 업권별 가계대출 평균금리를 추산(직전 1년간 이자상환액 합계/18년 9월말 대출잔액)해 본 결과, 은행 3.6%, 비은행 5.2%(농·수협 4.6%, 새마을금고 4.1%, 저축은행 10.5%, 여신전문금융회사 9.8%)로 나타났다.

6) 총 대출에서 연체가 발생한 차주의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연체가 발생한 차주의 경우 연체된 대출뿐 아니라 여타 대출도 잠재적인 부실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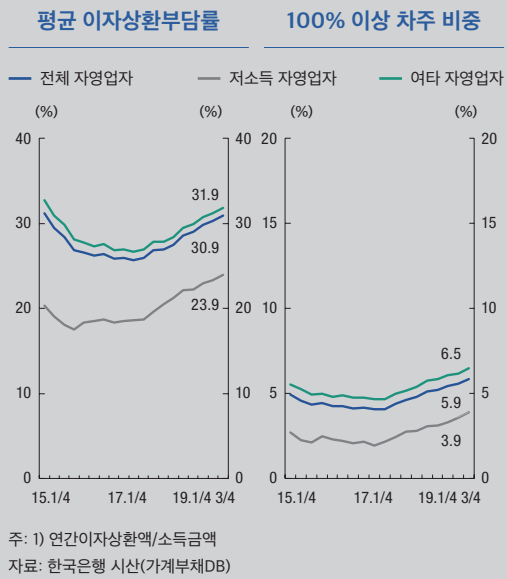
연체차주<sup>1)</sup> 비중



주: 1) 가계대출은 5영업일 이상, 사업자대출은 10일 이상 연체차주 기준  
 2) 기말 잔액 기준  
 3) 점선은 장기(90일 이상) 연체차주 비중  
 4) 2019년 9월말 대출잔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한편, 2019년 9월말 저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이자상환부담률<sup>7)</sup>은 23.9%로 여타 자영업자(31.9%)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또한 소득 대비 이자상환부담률이 100% 이상인 차주의 비중도 3.9%로 여타 자영업자(6.5%)에 비해 낮다.<sup>8)</sup> 다만 최근 업황 악화에 따라 소득 대비 이자상환부담률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소득 대비 이자상환부담률<sup>1)</sup>



평가

저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지원 등에 힘입어 고금리대출 및 저신용자 비중이 감소하는 등 일부 건전성 지표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여타 자영업자에 비해 연체차주 비중이 높고 최근 장기연체자의 대출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 또한 소득 대비 이자상환부담률이 상승하는 등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고 있어 향후 업황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대출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7) 가계부채DB상의 자료 제약으로 이자상환액은 가계대출의 대출종류별, 신용등급별, 업권별 평균 금리를 적용하여 추산하였다.  
 8) 자영업자의 1인당 대출금액이 높을수록 소득 대비 이자상환부담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아울러 정부가 2008년 이후 저소득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하여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순차적으로 공급해 온 것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